
韓日技術士 合同 심포지움



新技術開發事業團에서 韓國으로의 技術移轉

新技術開發事業團(特許涉外課長) 正 一 辰 郎

SHO ICHI TATSU RO

新技術開發事業團은 1961년에 日本國 政府가 設立한 全額 政府出資 特殊法人體입니다.

日本技術士會하고는 新技術의 開發과 周旋業務에 關係서 密接한 關係가 維持되고 있습니다.

新技術開發事業團에서는 最近 日本 國內에 있어서의 技術移轉과 더불어 1977年度 부터는 國外로 技術移轉業務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每年度, 國內의 民間企業等에서 收集한 産業技術(特許·노우하우를 中心으로 한 것)을 「國外用 技術紹介誌」에 모아 이 紹介誌를 各外國의 關係機關, 企業等에 送付하며, 혹은 國際的 技術交流 展示會에 參加하고, 日本의 技術을 各外國에 紹介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紹介誌를 통해서 新技術 開發事業團에 問議가 있으면 技術所有者에게 連絡하고, 그 後는 技術所有者와 問議者間의 直接 交渉이 되고 있으나 技術所有者가 國公立 研究機關이나 個人의 경우 일 때에는 新技術開發事業團이 代身해서 交渉等 契約이 맺어질때 까지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業務를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爲해서 첫째로 顧客을 찾는 일과 顧客의 要請에 맞는 技術이 있어야 할 것이 重要한 것이며 이르기 爲해서 는 相對國에 中繼的 役割을 할 수 있는 既存된 適當한 機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機關은 貴國의 産業界의 事情을 잘알고 있는 機關이여야 하고, 그 機關을 통해서 技術이 企業에 紹介되고, 또한 그機關에서 新技術 開發事業團에 企業이 必要한 사항이 傳達되고, 新技術開發事業團은 必要사항에 맞는 技術의 收集에 힘쓰는 技術移轉의 基本的 흐름이 된다면 技術移轉 業務는 더욱 前進될 것입니다.

이 機會에 新技術開發事業團에 蓄積된 技術中에서 우선 10件 程度의 推進할 수 있는 技術를 提示할 수 있으니 韓國技術士會에서 貴國이 適當하다고 여겨지는 企業을 紹介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더욱 이 後에도 事情이 許諾하는 한 繼續해서 貴韓國技術士會와 連絡을 取하면서 協力關係가 維持될 수 있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